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24001
----------	-------

발의연월일 : 2023. 8. 24.

발의자 : 김홍걸 · 조승래 · 민형배
서동용 · 김상희 · 정성호
이정문 · 백혜련 · 박재호
양정숙 · 박 정 · 김윤덕
우원식 · 박홍근 · 양향자
이병훈 · 이상헌 · 이형석
박완주 · 서영교 · 윤후덕
설 훈 · 한준호 · 배진교
황 희 · 윤호중 · 김태호
조오섭 의원(28인)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1945년 8월 24일, 해방 이후 본국으로 돌아오던 조선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등 귀환자가 승선했던 우키시마호가 폭침된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으로 수천 명의 조선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사건 후 7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확한 피해 규모, 폭발 및 침몰 원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키시마호에 승선했던 생존자와 희생자 유가족 등은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폭침 원인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우키시마호 희생자 집단 매장지로 추정되는 곳을 확인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며, 다수의 목격자 증언과 기록이 드러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해가 더 훼손되기 전에 정밀 발굴 조사와 유전자 검사 등으로 유해가 고국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참담한 아픔을 겪은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의 생존자와 유가족들을 위해 진상조사 및 유해 송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의 생존자와 유가족들이 참혹한 사건으로 겪은 고통과 피해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으로 사망한 희생자와 생존자 유가족에 대해 일본정부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 양국 정부가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와 유족의 품에 안길 수 있

도록 하는 모든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 구제, 희생자 추모를 위한 정책과 예산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은 해방 이후 본국으로 돌아오던 조선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등 귀환자 수천 명이 사망한 역사적 비극이었음.

사건이 발생한 지 78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키시마호 폭발에 대한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어 왔지만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으며, 진상규명을 포함해 정확한 피해인원 조차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우키시마호에 승선했던 생존자와 희생자 유가족들은 사고의 원인도 모른 채 고통과 트라우마 속에서 지내왔으며, 국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 일본 정부와 법적 소송을 진행하며 살아가고 있음.

우키시마호 폭침 사고에 대해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묻고 적극적인 항의 조치를 통해 생존자와 희생자, 유가족들의 피해구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임.

이에 국회가 앞장서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에 대해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에 책임 있는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는 희생자의 유해 발굴 및 송환을 통해 우키시마호 생존자와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

한 치유와 피해 회복을 촉구하고자 함.